

2012
영남경남의 춤



2012. 12. 12(수)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관람료 | 7만원 5만원 3만원

공연문의 | 국악공연기획 코락(www.korak.kr) 070 7759 0301
010 7102 0205 / 010 5473 3241 / 011 9523 4604



주관 | 영남교방청춤 보존회 주최 | 한국영남춤 문화예술연구소 기획 | 코락 (www.korak.kr)

박경량의 편지

가을이 떠나고 겨울의 초입에 들자마자 임진년 한해가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혼돈의 시간이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주변 많은 분들이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몸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젊다는게 한밑천이라고 고함질러대던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런 밑천도 없는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더 팍팍한 인생살이를 몸으로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춤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게 없습니다
世上事라는 수레바퀴에 발맞춰 멋지게 행진할 자신도 없고 理財에는 더더욱
선천적으로 재주가 일천하였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연마의 칼이 무디기만한 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돈되지 못하고 부족하기만한 저의 춤이지만 이십 수년 동안 저를
품어주고 키워줬던 제2의 고향 釜山을 위해 모자란 저의 기예를 최선을 다해
선보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전국의 내노라하는 소리꾼들을 모아 펼친 廣大傳(판소리명창서바이벌)에서
우승의 영예를 거머쥔 왕기철명창을 비롯해서 젊은 연희집단 The광대의 힘찬
에너지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중견소리꾼과 신세대감각의 연주자들이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그럼 남은 한해 잘 갈무리하시고 작은 소원입니다만 이번 공연으로 메마르기만한
人間事시름 잠시라도 가벼워지시라는 바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興福이 그득하시길 바라며 덤으로 지금껏 꾀인일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 실타래마다 금은보화가 줄줄 엮여 나오는 한해가 되시길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비읍니다

특히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영남교방춤보존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Forever 釜山!

임진년 선달 열이틀 박경량드림



공연내용

- 1.상사몽(相思夢)(박경량 왕기철)
- 2.영남교방청춤군무(박경량의 영남교방청춤보존회원63명)
- 3.문등북춤(박경량)
- 4.판소리 廣大傳우승곡 한오백년(왕기철)
- 5.판굿 영남북춤 소고놀이 (The광대)
- 6.교방소반춤 사자놀음(박경량 The광대)
- 7.버나놀이(The광대)
- 8.판소리 강강술래 (왕기철 서정금 김미진)

신디 류아름 해금 최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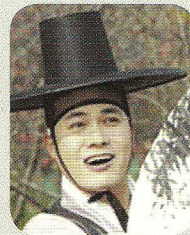


출연자 프로필



해설 박승찬
전통문화 다큐멘터리 감독

특별출연



판소리왕기철
국립창극단 부수석



판소리 서정금
국립창극단 단원



판소리 김미진
국립창극단 단원



신디 류아름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강사



해금 최태영
프로젝트락 단원



연희집단The광대

안대천 최영호 허창열
선영욱 이상영 이창훈
음대진 배정찬 황민왕

영남교방청춤보존회

강소영	강진식	고선자	김경화	김명숙	김미옥	김복임	김분선
김숙경	김순남	김은숙	김정미	김정임	김현숙	노영희	류혜숙
문혜숙	박명주	박선영	박차엽	백재화	설숙희	손미경	신동순
신예담	안계숙	염춘숙	오래임	오신옥	오영이	유말순	유안나
이명옥	이명자	이명희	이미옥	이응순	이정실	이정원	이채영
이청자	장현주	전민영	전소영	정정아	정희숙	조론심	조미나
조윤경	지주옥	최명숙	최복순	최복환	최선희	최영숙	최은숙
최정희	최희단	하만옥	하정혜	한금숙	한지연	한혜정	